

순천 경전선 도심 통과 대책 논의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23일 포럼...우회 철로 개설 등 합리적 대안 모색

순천시가 경전선의 도심 통과 반대 및 우회 철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전선 전철화의 영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연다.

순천시에 따르면 23일 시와 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회의 공동 주최로 포럼을 열고 '경전선 전철화가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민의 의견과 논의를 펼친다.

이날 포럼은 원재무 김포대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순천시의 보고로 시작한다.

이어 박정수 동양대 교수의 '공간 재정조를 위한 철도 도심 통과구간의 개선 사례', 이정록 전남대 교수의 '철도 등 도시교통망이 도시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김인철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과 김선중 도시동 주민자치회장이 시민 패널로 참여해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 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으로 기본계획상 순천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해 설치하는 안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 경우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노관구 순천시장은 지난 7월과 8월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해 제

검토를 요청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경전선 도심 우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운동, 반대 집회, 상경 투쟁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10월 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앞두고 순천지역 반대 여론이 격해지고 있는 지금,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이뤄지고, 시민의 바람대로 도심 통과 노선이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고흥군 농산물수출개척단-체코 업체 210만달러 협약

유자·생강 가공품 수출...폴란드·독일 등 중부유럽 개척

고흥군 농산물수출개척단이 체코의 플젠에서 YUZU(주)와 미화 210만달러(한화 29억원)의 유자, 생강 및 고흥농산물 가공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미화 210만달러(한화 29억원) 수출협약을 체결한 YUZU(주)는 체코, 폴란드, 독일 등에 식품 유통 채널을 가지고 유럽 중부에 유자상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다.

최근에는 고흥 유자차, 유자음료, 생강차 등을 유럽시장에 적극 유통하고 있다.

YUZU(주)의 마틴 로미츠키 대표는 "공영민 고흥군수께서 직접 체코 플젠까지 방문해 고흥농산물 마케팅에 힘을 보태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면서 "고흥농산물을 체코 국민은 물론 전 유럽인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앞으로도 공격적인 유럽시장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체코를 교두보로 유자 등 고흥농산물이 유럽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품이 되

도록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출협약으로 세계 최고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유자 가공업체는 물론 유자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개척단은 체코의 플젠시에 있는 (주)로스카페(Crosscafe)사 본점 매장에서 현지인 1500여 명에게 고흥유자와 생강음료 무료 시음 판촉행사도 진행했다. (주)로스카페(Crosscafe)사는 체코의 최대 카페 체인점을 갖고 있다. (주)로스카페 데이비드 슈팡글러 대표는 "고



공영민 고흥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산물수출개척단'이 체코의 플젠에서 YUZU(주)와 29억원의 유자, 생강 및 고흥농산물 가공품 등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제공>

흥 유자는 매우 독특한 맛과 향을 갖고 있어 유자음료, 유자 맥주, 유자 커피, 유자 케이크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체코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70%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10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농어촌버스 운행 전 구간

보성군이 (주)보성교통과 초·중·고등학교생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학생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생 100원 버스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00원 버스 적용대상은 초·중·고등학교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에 적용된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탑승 때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금 결제 때는 기존 단일요금(8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성군이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17년도부터 시행한 1000원 버스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



김철우(왼쪽) 보성군수가 지역 버스업체 대표와 청소년 100원 버스 업무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쳐 교통복지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 설산산성, 전남도 문화재 지정

신라말~고려초 축성 추정 1300m 길이 성벽 등

곡성 옥과면 설산산성(사진)이 전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

설산산성은 1300m 길이로 추정되는 성벽으로, 문지 3곳(동·서·남), 건물지 4곳, 대형 집수 시설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기와 기와 등에서 신라 말 고려 초 시기의 양식이 발견돼 10세기 전후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시대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산산성은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계곡 일대를 돌아가며 성을 쌓는 방식인 '포곡식(包谷式)'과 성벽 일부는 산의 중턱까지 내려서 성을 쌓는 방식인 '산복식(山腹式)' 등을 사용해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통일신라 시대 축성법을 잘 보여 준다.

전남도는 설산산성이 성곽사와 당시 관방 체계를 연구하는 데 학술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도



문화재로 지정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내 학술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화재로 지정해 우리 군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 예울마루 주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여수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심 경관 개선 및 도시열섬 완화 효과를 위해 도심생활권 주변에 조성하는 숲을 말한다.

사업 대상지는 예울마루 주변 유휴지 1.5ha(4600여평)로 이번 공모에서 '도시열섬 완화형' 분야에 선정됐다. 사업비로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등 총 15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민들이 일상의 가까운 곳에서 푸르름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게 됐다"며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어르신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 푸세요"

광양시, 셀프 마사지볼 제공

광양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스트레칭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광양시는 23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굳어버린 내 근육! 셀프 마사지볼로 해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사지볼을 이용한 스트레칭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근육 사용을 도모하며, 신체기능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교육의 일환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크기도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적당하고 부드럽워서 전신 부위 마사지에 사용하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태우 광양시노인장애인과장은 "겨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몸을 쉽게 굳어버려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앞으로 신체적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등 다방면의 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는 장기



요양 이전 단계의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1625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